비상경제장관회의
23-20-1
(공개)

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

2023. 9. 4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(요약)

1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

□ **(수출) '23.1~8월 수출액은 △12.4% 감소(4,093억불) 하였으나, '23.1분기 저점 이후 전분기 대비 개선 흐름**

○ (품목) 자동차, 이차전지(양극재 포함), 기계, 선박 수출 증가

▪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IT 부품, 석유제품·油化 큰 폭 감소

○ (지역) 對中·對아세안 △20% 수준 감소, 對美 보합, 對EU 증가

▪ 美-中간 수출비중 격차('23.1~8월 : 1.8%p)는 '03년(0.4%p) 이후 최소

* 최근 對中 수출·수지(억불, '23.3~8월) : (수출) 105 → 95 → 106 → 105 → 99 → 105
(수지) △27 → △23 → △18 → △13 → △13 → △12

□ **(수입) 에너지(△22%)·非에너지(△9%) 모두 감소한 4,333억불(△12%)**

○ (에너지) 국제가격 하락으로 원유·가스·석탄 수입 모두 감소

* 에너지원별 수입액·증감률('23.1~8월, 억불) : 원유549(△24%), 가스290(△12%), 석탄145(△27%)

○ (非에너지) 반도체·철강 등 중간·자본재 감소, 소비재 보합

* 가공단계별 수입증감분('23.1~8월, 억불) : (중간재) △254, (자본재) △46, (소비재) △22

□ **(수지) 무역수지는 '23.1월 이후 개선 추세, 6~8월 연속 흑자**

* 무역수지(억불, '23.1~8월) : △126 → △53 → △47 → △28 → △22 → **+11** → **+17** → **+9**

□ **(전망) 6월부터 이어지는 흑자기조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**

○ (수출) 자동차·이차전지(양극재 포함)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, 선박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

○ (수입) 에너지 수입은 유가 소폭 상승, 동절기 수요 증가 영향으로 연말로 갈수록 증가, 전체 수입은 상반기 수준 감소

* 유가 전망(Brent, $/b, EIA) : ('23.2분기) 78.0 → (3분기) 83.8 → (4분기) 87.7

2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

◇ 품목·지역 다변화 등 수출구조 개선 방안 추진 + 무역금융·수출마케팅·해외인증 등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

◇ 경제단체·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

1 수출품목 다변화

1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

◇ 투자지원·인력양성·통상협력 등을 통해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

○ **(국가첨단전략산업)** 중소·중견기업 R&D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신설(기업당 한도 50억원),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*

* 보조율: (現) 투자금액의 29% 수준 → (改) 최대 50%

○ **(반도체)** 반도체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'반도체생태계 펀드' 조성(3,000억원, '23.7~),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

○ **(이차전지)** 포항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,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규 지정(3개교), 차세대 전지 R&D 신속 예타 추진(약 2,000억원)

○ **(바이오)** 보스턴-코리아 프로젝트* 등 R&D 국제협력 확대, K-바이오데스크 설치('24년 7개소)로 기업애로(인·허가, 통관 등) 해소 지원

* 韓 의료데이터와 美 첨단바이오 기술 융합·활용, 의사과학자 양성 등

○ **(디스플레이)** OLED 패널 시험생산 인프라 구축*을 통한 기업의 신기술 검증 지원, 대형디스플레이 장비 운송 신속허가 지원**

*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(천안, '24.上 준공, 총 1,595억원)

** (現) 이동경로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별도 협의 → (改) 협의체 신설해 일괄 협의

○ **(철강)** 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일본 등과 통상협력 강화, 친환경 원료 확보를 위한 '철자원 산업육성전략' 마련('23.4분기)

* AI 기반 스크랩 검수 기술 도입·확산, 등급분류 표준 개선, 통계기반 구축 등

○ **(조선)** 인력충원을 위한 **E-9 조선업 쿼터**(現 5,000명) **확대 검토**, 무보 **RG 특례보증 2천억원 신규 공급,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주체 확대***

* (現) 발주사, 선주 → (改) 제조사(조선사) 추가로 친환경선박 건조실적 인정 확대

○ **(자동차)** 전용 수출선복 부족으로 컨테이너선 이용 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**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**(35%) **요건 완화**

* (現) 당일, 같은 장소에서 검사 → (改) 일주일 내 검사한 물량에도 할인 적용

○ **(일반기계)** 사우디 등 중동에 「**건설기계 수출사절단**」 파견

2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

◇ **디지털, 화장품, 콘텐츠, 식품, 에너지, 녹색산업 등 수출 확대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유도**

○ **(디지털)** 디지털 新제품·서비스 **ICT 융합품질 인증을 확대**하여 **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** 등 **판로 확대 지원**

○ **(화장품)** **K뷰티의 높은 관심**을 활용하여 수출 유망국가 등을 대상으로 **현지 홍보관, 해외 판매장** 등 **확대 운영**

* K뷰티 홍보관 1개소 추가운영('23.4분기), 해외화장품판매장 2개소 신규 운영('24년)

○ **(콘텐츠)** **1조원 규모 「K-콘텐츠 전략펀드」를 조성**('24~'28년)해 글로벌 시장 공략 **K-콘텐츠 육성**

* 대형 프로젝트,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

○ **(농수산식품)** **'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'** 대폭 **확대**('23년 44억원 → '24년 328억원), 딸기 등 신선품목 **물류비 지원비율 상향**(15% → 25%)

○ **(에너지)** **신재생에너지 기업**의 **해외진출 지원**을 위해 **전력공기업**이 **해외 발전사업**에 **국산 기자재 활용시 경영평가에 반영***

* 국산 태양광, 풍력 제품을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로 인정하여 경영평가 가점 부여

○ **(녹색산업)** **현지전담팀**을 **인니**(10월, 물분야), **콜롬비아**(11월, 폐기물분야) **등에 파견**하여 K-환경정책을 수출하고 **신규 수출사업 발굴**

2 수출 지역 다변화

1 주력시장(미국 · 중국 · 아세안)

◇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**정부간 협업체계**를 공고히 하고, 국내 기업의 **해외진출 밀착 지원**을 위한 **현지지원센터 구축**

○ **(정부간 협업)**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, 한중경제협력교류회 등을 개최하여 한·중 정부·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

○ **(해외진출 지원)** 공공기관 해외투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*, 창업·벤처 기업의 현지·합작법인 설립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 조성('24년~)

* 예비타당성조사 시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 하여 예타기간 단축

○ **(현지거점 구축)** 현지수요 발굴·매칭 등 지원을 위한 미국 거점 반도체협력센터('24년), 미국·베트남에 해외물류센터 추가('23.12월)

2 新전략시장(중동 · 중남미 · EU 등)

◇ 대규모 건설·플랜트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**정부간 협력**+**금융지원**+**현지거점센터** 확보+정보제공 등 **패키지 지원**

○ **(정부간 협업)**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화상회의, 한-사우디 경제협력단 파견(9월), 인프라위원회 설립 추진 등 우호적 진출환경 조성

○ **(해외진출 지원)** 고위험·저신용국 수주 지원 위해 수은 특별계정 2,500억원(정부 1,000억원 + 수은 1,500억원) 추가 조성

- 플랜트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 대상 무역금융 확대(무보, '23년 17.8조원 → '24년 20조원), PIS*펀드 1.1조원 추가 조성('24~'27년)

* 플랜트·인프라·스마트시티펀드(Plant, Instructure, Smart city Fund)

○ **(현지거점 구축)** 중동 등 전략시장 중심 현지 거점무역관 확대

* (원전) 10→16개소, (방산) 20→31개소, (플랜트) 7→11개소 등

3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

◇ **무역금융·수출마케팅·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, 통관·물류 규제개선 등 수요자(기업)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**

○ **(무역금융)** 연말까지 최대 **181.4조원 무역·수출금융 공급**

*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.6조원, 수출금융 17.4조원, 은행 수출 우대상품 5.4조원

○ **(해외마케팅)** **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·중견기업 수출지원***, 해외전시회 참가 **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확대****

* 전문무역상사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 동반 판촉전, 글로벌 전시회 단체참여 지원 등
** (기업수) 5,478 → 5,646개社(+168), (지원단가) 12.6 → 15.1백만원(+19.8%)

○ **(수출바우처)** 수출바우처 '24년 **지원규모*** **및 지원항목******을 확대**

* 지원규모: ('23) 1,441억원 / 3,473개사 → ('24) 1,679억원(+238) / 3,984개사(+511)
** 지원항목 추가 : 수출국 현지 사후관리 대응 서비스, 유해물질 검사

○ **(해외인증)** 의약품 수출시 국내 허가자료를 활용해 **수출국 허가 절차를 간소화**할 수 있도록 **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**(싱가포르 등)

○ **(통관·물류)** 인천 신항(11월), 부산항(12월) 등 **항만인프라 적기 확충, 중소기업**에 대한 **보세공장 설립 허가기준 완화**('23.10월)

○ **(인력 확보)** 연내 **외국인 고용허가서**(E-9) **4만명 발급, '24년 쿼터확대 추진**

* (E-9) 기본 쿼터 11→12만명, 업황 변동에 따른 탄력 쿼터 1→2만명+α로 확대

4 현장애로 해소

◇ **수출현장 애로를 즉시 개선하고, 수출애로 발굴 체계 확대 가동**

○ **(수출기업 지원)** 위험국가 **여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**를 통한 해외영업 지원,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**조달 인센티브 강화*** 등

*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수출실적에 따른 평가 배정 차등화

○ **(수출119 운영)** 수출 애로를 현장밀착형으로 해소하는 '**원스톱 수출 119' 확대 운영**(월 2회), 유망수출기업 **방문 컨설팅 신설**

순 서

Ⅰ.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····· 1

Ⅱ.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····· 3

1. 수출품목 다변화 ····· 5

1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····· 5
2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 ····· 12

2. 수출지역 다변화 ····· 19

1 주력시장(미국 · 중국 · 아세안) ····· 19
2 新전략시장 (중동 · 중남미 · EU 등) ····· 21

3. 수출인프라 보강 ····· 24

1 무역금융 ····· 24
2 마케팅 · 전시회 ····· 25
3 수출바우처 ····· 26
4 해외인증 ····· 27
5 통관 · 물류 ····· 28
6 인력확보 ····· 31

4. 현장애로 해소 ····· 32

Ⅲ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3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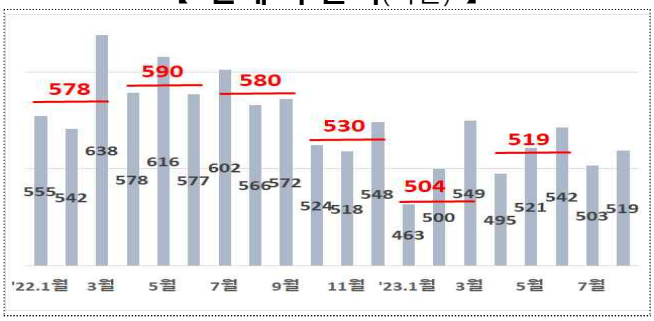
Ⅰ.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

□ [수출] '23.1~8월 수출액은 전년比 △12.4% 감소(4,093억불) 하였으나, '23.1분기 저점 이후 전분기比 개선 흐름

○ (품목) 자동차, 이차전지(양극재 포함), 기계, 선박 수출 증가

▪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IT 부품, 석유제품·油化 큰 폭 감소

【 전체 수출액(억불)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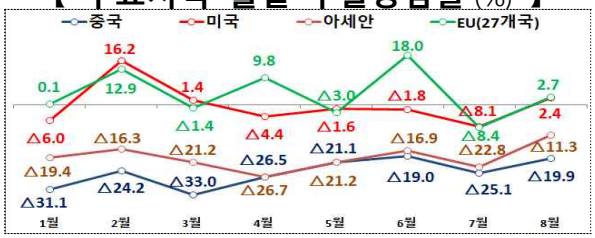
【 '23.1~8월 품목별 증감률(전년比, %) 】

증가		감소	
▸ 자동차	(+39.5)	▸ 반도체	(△34.9)
▸ 이차전지 (양극재포함)	(+20.4)	▸ 디스플레이	(△22.0)
▸ 선박	(+5.2)	▸ 무선통신	(△15.6)
▸ 일반기계	(+2.6)	▸ 가전	(△4.7)
보합		▸ 컴퓨터	(△58.4)
▸ 차부품	(△0.4)	▸ 석유제품	(△25.4)
		▸ 석유화학	(△22.1)
		▸ 철강	(△10.8)
		▸ 바이오	(△25.5)
		▸ 섬유	(△13.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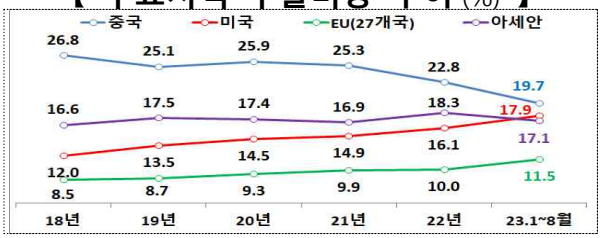
○ (지역) 對中·아세안 △20% 수준 감소, 對美 보합, 對EU 증가

▪ 美-中간 비중 격차('23.1~8월 : 1.8%p)는 '03년(0.4%p) 이후 최소

【 주요지역 월별 수출증감률 (%) 】



【 주요지역 수출비중 추이 (%) 】



* 최근 對中 수출·수지(억불, '23.3~8월) : (수출) 105 → 95 → 106 → 105 → 99 → 105
(수지) △27 → △23 → △18 → △13 → △13 → △12

□ [수입] 에너지[△22%]·非에너지[△9%] 모두 감소한 4,333억불[△12%]

* 가공단계별 수입액 비중('23.1~8월, %) : (중간재) 58.0, (자본재) 14.4, (소비재) 14.9 / (에너지) 22.7

○ (에너지) 국제가격 하락으로 원유·가스·석탄 수입 모두 감소

* 에너지원별 수입액·증감률('23.1~8월, 억불) : 원유549(△24%), 가스290(△12%), 석탄145(△27%)

○ (非에너지) 반도체·철강 등 중간·자본재 감소, 소비재는 보합

* 가공단계별 수입증감분('23.1~8월, 억불) : (중간재) △254, (자본재) △46, (소비재) △22

□ [수지] '23.1월 이후 무역수지 개선 추세, 6~8월 연속 흑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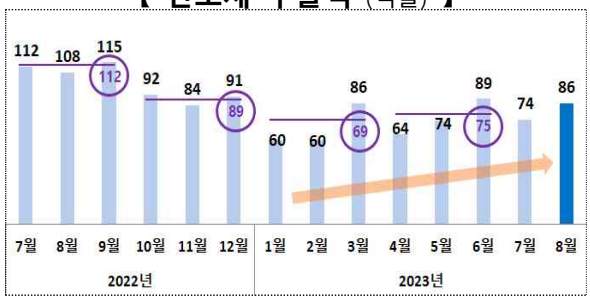
* 무역수지(억불, '23.1~8월) : △126 → △53 → △47 → △28 → △22 → **+11** → **+17** → **+9**

[Box : '23.1~8월 주요품목 수출 동향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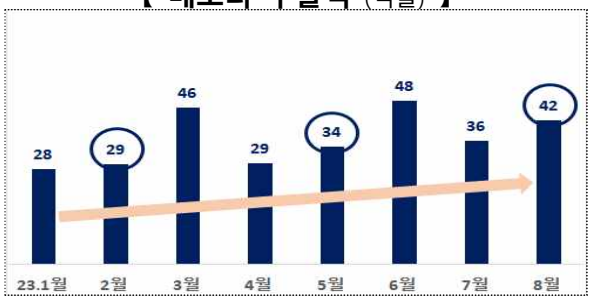
□ **(반도체) 올해 1분기를 저점**으로 **점진적인 수출 개선 추세**

○ **메모리**의 경우 **반도체 수출의 49%**를 차지하며, **감산 효과**와 **고성능 D램 수요 확대** 등의 영향으로 **수출액 소폭 증가 흐름**

【 반도체 수출액 (억불) **】**



【 메모리 수출액 (억불) **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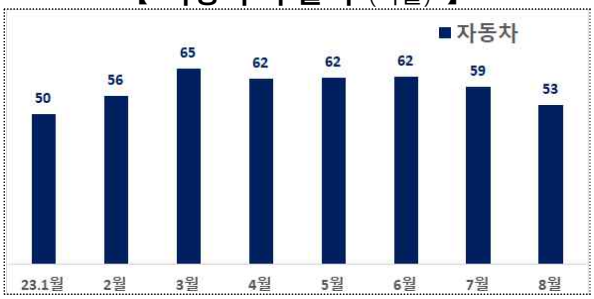


□ **(자동차·이차전지) 월 평균 79억불 수준, '23년도 전체 수출 견인**(+34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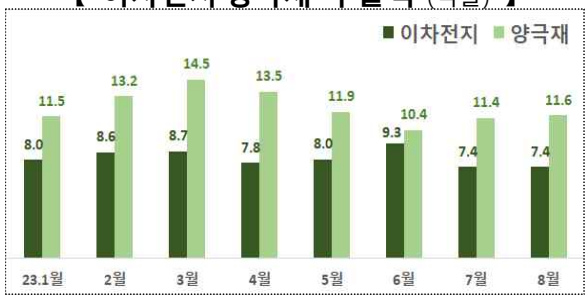
○ **자동차 수출**은 **月 50억불 이상 유지, 전기차** <'23.1~8월 자동차 수출 內 비중 : 24%> **수출**도 **양호한 흐름**을 **보이며 호조세 지속**

○ **이차전지· 양극재 수출**은 전기차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연계하여 **月 수출 20억불 수준 유지**

【 자동차 수출액 (억불) **】**



【 이차전지·양극재 수출액 (억불) **】**



□ **(선박) '21년 수주호황기 물량**의 **생산·인도**가 **본격화**되면서, **3월 이후 月 17억불 수준 유지, 8월 누계 수출 +5.2% 증가**

* 선박 수출액 추이(억불) : '23.1분기 13.6 → 2분기 17.1 → 7월 17.5 → 8월 16.1

□ [전망] 6월부터 이어지는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

○ (수출) 자동차·이차전지(양극재 포함)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, 선박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

○ (수입) 에너지는 유가 소폭 상승, 동절기 수요 증가 영향으로 연말로 갈수록 증가, 전체 수입은 상반기 수준 감소(전년比)

* 유가 전망(Brent, $/b, EIA) : ('23.2분기) 78.0 → (3분기) 83.8 → (4분기) 87.7

Ⅱ. 수출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

◇ 품목·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한 방안 추진 + 무역금융·마케팅·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 보강

◇ 경제단체·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애로 해소 추진

※ (밑줄) 신규 과제 / (점선 밑줄) '24년 예산안 포함 과제

수출 품목 다변화	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	▸ (국가첨단전략산업) 유턴기업 투자 지원* 확대 * 보조율: (現) 29% 수준 → (改) 최대 50% ▸ (반도체)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※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번째 사례 ▸ (이차전지)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규 선정(3개교) +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* *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총사업비의 5~30% 국고지원 가능 ▸ (바이오) '보스턴-코리아 프로젝트*' 등 R&D 국제협력 추진 * 韓 의료데이터와 美 첨단바이오 기술 융합·활용, 의사과학자 양성 등 +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(年 10~15개 기업 해외진출 지원) ▸ (디스플레이) 대형 장비 운송을 위한 신속 운행 허가 지원 ▸ (조선) 무보 RG 특례보증 2천억원 신규 공급 + E-9 조선업 쿼터 추가 확대 + 제조사(조선사)도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허용 ▸ (자동차) 컨테이너선 이용시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적용 확대 * (現) 당일, 같은 장소에서 검사 → (改) 일주일 내 검사한 물량
	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	▸ (디지털) 디지털 新제품·서비스 ICT 융합품질 인증 확대 + 브랜드-K 선정분야 확대(現콘텐츠 등 → 改ICT/SW 서비스 추가) ▸ (콘텐츠) 'K-콘텐츠 전략펀드' 1조원 규모 조성 추진('24~'28) ▸ (농수산식품)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('23년44→'24년328억원) + 연말까지 딸기 등 신선품목 물류비 지원비율 확대(최대 15 → 25%) ▸ (에너지) 전력공기업-국내 기자재 업체 해외동반 진출 인센티브 강화 * 전력공기업의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부여 +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신규 조성(포항, '24~'28) ▸ (녹색산업) 인니(10월), 콜롬비아(11월)에 현지 전담팀(기업+전문가) 파견 + 기업 1:1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(9월~, 20건 이상)

수출 지역 다변화	주력시장 (美·中·아세안 중심)	▸ **(정부간 협업)** **한중 경제장관회의·경제교류협의회 개최** 추진(연내) ▸ **(해외진출 지원)** **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예타 기간 단축** *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하여 조사기간 단축 ▸ **(현지거점 구축)** 미국 內 **거점 반도체 협력센터** 및 미국·일본 內 **콘텐츠 기업 지원센터** 신설('24년) + **미국(LA)·베트남(하노이)**에 **해외물류센터** 추가확보(12월)
	新전략 시장 (중동·중남미 ·EU 등)	▸ **(정부간 협업)** **경협·수주활동 지원** 등 **민관협력단 현지활동** 강화 · (**우크라이나**) 재건협력 강화 위한 화상협의 지속 추진 · (**폴란드**) 한-폴란드 차관급 협의체 운영(9월~) · (**사우디**) 기업 셔틀경제협력단(9월) 및 원팀코리아 파견 · (**파라과이**) GICC에 파라과이 공공사업부 장관 초청(연내) ▸ **(해외진출 지원)** **고위험·저신용국 수주사업** 지원을 위해 **수은 특별계정 2,500억원**(정부 1,000+수은 1,500억원) **추가 조성** +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위해 **무보 무역금융 확대**('23년17.8→'24년20조원) ▸ **(현지거점 구축)** **중동** 등 전략시장 중심 **현지 거점무역관** 확대 (원전: 10→16개소, 방산 20→31개소, 플랜트 7→11개소 등)
인프라 보강		▸ **(무역금융)** 연말까지 **최대 181.4조원 무역·수출금융 공급** * 무역금융 잔액 158.6조원 + 민관합동 수출금융 22.8조원 ▸ **(해외마케팅)** **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대상** 및 **기업당 지원액 확대** * (기업수) 5,478 → 5,646개社(+168), (기업당) 12.6 → 15.1백만원(+19.8%) + **K-브랜드 마케팅 지원 대상 확대**(뮤직비디오, 인플루언서 콘텐츠 추가) ▸ **(수출바우처)** 수출바우처 **'24년 지원규모** 및 **지원항목**(메뉴판) **확대** * 지원규모: ('23) 1,441억원 / 3,473개사 → ('24) 1,679억원 / 3,984개사 (+238억원/511개사) + **신청 시기 분산**(年 1회 → 2회 이상) + **수행기관 지정방식 개편** ▸ **(해외인증)** **의약품 해외 자동승인제도** 확대 위한 MOU 추진(남미국가 추가) + 의약품 수출 **상호인정협정 체결국 확대** 추진(싱가포르) ▸ **(물류·통관)** **부산항 신항 수출 컨테이너 반입 가능 기한 확대*** 협의 지원 + **부산항 신항 신규터미널 준공**(12월) + **中企 보세공장** 허가기준 완화(10월~) * 접안일 3~4일 前 → 중소화주 대상으로 5일 前 ▸ **(인력 확보)** **연내 4만명 외국인 고용허가서**(E-9) **발급 + '24년 쿼터 지속 확대**
현장 애로 해소		▸ **(애로해소)** '**원스톱 수출 119**' **확대 운영**(월 2회 이상 개최) ▸ **(기업지원)** **여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, 수출기업 조달 인센티브 강화**

1. 수출품목 다변화

1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

◇ 투자지원·인력양성·국제협력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

□ (국가첨단전략산업)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· 재정 · 금융 지원 강화

○ 금년 신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*(7개소)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금융(융자)·보조금 등 지원 강화

* 반도체(용인·평택, 구미) 이차전지(포항, 청주, 울산, 새만금) 디스플레이(천안·아산)

-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R&D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 신설(기업당 50억원 한도, 금리 1~2%내외)
-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투자금액의 최대 50%까지 확대(現 29% 수준)

○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수출 신고·승인절차 간소화 지원 지속(산업기술보호지침 개정*(7.26일)) 현장애로

* **연간포괄심사 도입**(완제의약품 해외 인·허가, 해외자회사 공동연구), **서면심사 우선 적용**(해외특허분쟁 대응), **심사대상 제외**(특허권자가 특허 출원시 공개된 자료만 이전하는 경우)

현장의 목소리 **대한상의** :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대상에 소송 대응 목적 등 통상적 수출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까지 포함 → 특허분쟁 및 해외 인·허가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

□ (반도체)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+ R&D · 인재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

○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신속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

※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번째 사례

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계획(안)

위치	면적	개발 구상(안)
경기 용인 (남사읍)	710만㎡ (215만평)	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 구축('23~'30년) ■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, 연구기관 등 유치→제품·기술개발 협력 ※ 직접고용 3만명 이상, 고용유발 160만명 이상 예상

○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유망 분야에 **대규모 R&D**를 지속 추진

▸ **(차세대지능형반도체)** 1조96억원('20~'29)	▸ **(PIM인공지능반도체)** 4,027억원('22~'28)
▸ **(화합물전력반도체)** 1,385억원('24~'28)	▸ **(차량용·첨단패키징 등)** 2.2조 이상 계획

○ 반도체 **특성화대학, 단기 교육과정(부트캠프)** 등 **인력양성**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

▸ **(특성화대학)** 반도체 신규 10개 추가('23년 8개) → 총 18개

▸ **(부트캠프*)** 반도체 신규 17개교 내외 추가('23년 10개교) → 年 4,000명 육성

* 대학+기업이 협업하여 1년 이내 집중교육 → 반도체 분야 취업 지원

○ **기업출자**와 **민간매칭**을 통해 3,000억원 규모의 '반도체생태계 펀드'를 **조성**('23.7~)하여 **반도체 중소·중견기업 금융지원** 강화

□ [이차전지]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, 수출품목 고도화 집중 지원

○ **산학융합인재 양성**을 위해 특성화대학을 신규 선정(3개교)하고, **핵심 인프라**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*(포항)

*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용수·전력·도로·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총사업비 5~30% 범위에서 국고 지원 가능(투자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)

○ **수출품목 고도화·품목 다변화**를 위한 **기술개발** 적극 추진

- **배터리 성능**(에너지밀도)과 **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**하기 위해 2,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R&D에 대한 신속 예타 추진(~11월)

- 우리 주력 제품인 **삼원계 배터리의 대안**으로 부상중인 LFP (리튬·인산철) 배터리, 나트륨 배터리 등의 개발을 위한 신규 R&D* 추진

* 저가격·장수명 나트륨 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셀 제조기술 개발(신규, '24년 26억원)

- 소부장 기업과 배터리 기업의 **협력형 R&D 과제를 확대**하고, 소부장 기업들이 즉시 실증 가능한 배터리 파크* 구축

* (기간) '22.3~'26.2월, (예산) 총 341억원, (기능) 시제품 제조, 성능·안전평가, 기업지원 등

□ [바이오]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며, 해외정보 제공 강화

❶ **(맞춤형 지원)** 바이오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및 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·협업을 통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

- 글로벌 바이오 액셀러레이터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여 우수 기업(年 10~15개 기업) 맞춤형으로 해외 진출 집중 지원
- '메디스타[1] 이니셔티브' 유망기업 30개사 해외진출 집중 지원[2]

1」 의약품, 의료기기, 디지털헬스케어, 의료서비스 등 분야 국내기업
2」 시장조사, 현지출장 지원, 거래선 발굴, 바이어 초청, 수출상담회, 쇼케이스(전시) 등 지원

- 주요국 무역관 內 K-바이오데스크 7개소를 설치하여 인허가, 통관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 및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

* 미국(LA), 독일(프랑크푸르트), 일본(도쿄), 중국(베이징) 등 '24년 7개소 설치 추진

- 국내외 세계 최고 그룹간 공동연구, 신진연구자 해외선도 연구 참여 지원 등 「보스턴-코리아 프로젝트*」 추진('24년~)

* 韓 의료데이터-美 첨단바이오 기술을 융합·활용, 의사과학자 양성 등

- 수출용 의료SW 제작시 해외 현지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·영국 등 선도국*과 국제협력·공동연구 추진

* 미국 연구프로그램(All-of-Us), 영국 바이오 뱅크(UK Biobank)와 협력 등

❷ **(정보제공)** 해외시장 동향, 보건·의료분야 국제입찰 등 정보제공

- 주요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및 시장동향·해외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바이오헬스 릴레이 수출설명회 개최('23.9~11월)

* (9월)미국 보스턴 → (10월)UAE → (11월)인도네시아 바이오헬스 수출상담회

- 해외 바이어 초청 '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'(9.14-15), EU CPHI*(23.10) 한국관 운영 등을 통해 1:1 수출상담 및 해외시장 진출정보 제공

* Convention on Phamaceutical Ingredients

- 국내 보건·의료분야 기업의 국제입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구 입찰정보 신속제공 및 입찰참가 신청서 작성 지원 현장애로

* 국제의료조달정보센터(GHPIC) 홈페이지에서 UN, ADB, WB 등 국제기구의 보건의료분야 입찰 공고 정보 제공

> 현장의 목소리 **제약·바이오협회 : 약 19조원 규모의 보건의료분야 국제입찰 시장, 각국 정부 주관 공공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요청**

□ [디스플레이] 고도화된 시험생산 인프라 및 산업융합 실증센터 구축

○ 대기업 R&D 라인과 동등한 수준의 OLED 패널 시험생산 인프라*를 '24년초까지 구축하여 소부장 기업의 신기술 검증 지원

*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(천안, '24.上 준공, 총 1,595억원)
: OLED 패널 제조에 필요한 全 공정 장비 65대 구축

○ 미래차용 디스플레이 성능·신뢰성 및 사용자 안전성 등을 종합 검증 가능한 실증센터 구축('23~'27년, 총 146억원)

○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, 산학연계 인력 양성을 위해 부트캠프(단기교육프로그램) 4개교 내외 설치('24~)

○ 디스플레이 등 대형장비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운행기준을 초과하는 운반차량의 신속한 운행허가 지원 현장애로

* (現) 운반차 크기가 관련기준 초과시 기업이 **경로상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** 필요
(改) 기업애로 발생시 국토부-도로관리청-기업 간 협의체 구성→ 최적 인허가 방안 마련

> 현장의 목소리 **디스플레이산업협회 : 현행「도로법」 및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 체계로는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장비 수출 등에 애로**

□ [철강] 철강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및 통상협력 강화

○ '23.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*) 전환기간 개시 대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, 보고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(9월)

* **탄소국경조정제도**(**C**arbon **B**order **A**djustment **M**echanism)

○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CBAM, 지속가능한철강협정(GSSA) 등 대응협력 강화

* 한-일 민관 철강협의회('23.5), 한-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('23.9) 등 정례개최

○ 2천억원 규모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[1] 사업 추진 및 친환경 원료 확보를 위한 "철자원 산업육성전략[2]" 마련(4분기)

1」 고로·전기로 탄소감축기술, 수소환원제철 설계기술 등('23~'30, 총사업비 2,097억원)

2」 AI 기반 스크랩 검수 기술 도입·확산, 등급분류 표준 개선, 통계기반 구축 등

□ [조선] 선수금환급보증(RG)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인력수급 지원

○ 지속적인 선박 수주가 이루어지도록 **은행 간 협의를 통해 적시에 충분한 선수금 환급보증(RG) 발급***

* (삼성) 8월중 RG 24.5억불 분담한도 추가 설정 + 필요시 24.5억불 추가 설정 예정
(현중계열) 연초 설정한 발급한도 70.6억불 내 지속 공급 + 부족시 추가 한도설정 협의
(중형조선사) 지방은행 등 참여를 통해 하반기에 3.3억불 수준 공급 예정

○ 400억원 신규 출연(운용배수 5배)을 통해 무보의 RG 특례보증 2천억원 추가 공급

○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및 미래 조선산업 인재 양성

- 단순노무인력(E-9) 조선업 별도 쿼터(현재: 5,000명)를 쿼터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내년 쿼터 배정시 확대 검토

- 신규 입직자 대상으로만 제한되었던 공제사업*을 재직자에게도 확대(2만명 목표, '24년 예산 100억원)하여 장기근속 지원

* 2년 만기 800만원 지급(근로자·기업·지자체·정부 각각 200만원 납입)

-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 조건부로 일정기간 현장교육 수료시 전문인력 자격(E-7) 변경 허용

- 친환경·스마트 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을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 신규 설립('24년 750명)

○ 친환경 선박 건조실적 인정 및 인센티브·지원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조사(조선사)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장애로

* (現) 발주사·선주만 친환경 선박 신청 가능 → (改) 제조사(조선사)도 허용
(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(해수부· 산업부령)」 개정)

현장의 목소리 **한국경영자총협회 :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주체가 선주 등으로 한정 → 선주 인증 미신청시 조선사는 친환경선박 건조실적 공시 불가 + 친환경 녹색활동(K-Taxonomy)으로 未인정**

□ [자동차] 전기차 신흥국 진출 + 수출물류 애로 해소 중점 추진

○ 정상외교 등을 활용하여 신흥시장 전기차 수출 확대 추진

- '한-인니 e-모빌리티 협력 MOU*' 체결('23.9월) 등 급성장하는 신흥국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

* 인프라·인력·R&D·제도 등 4대 분야에서 양국간 전기차·전기이륜차 협력확대 추진

○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최초 지정*('23.7월, 광주 자율차, 대구 전기차 모터) 등 첨단자동차 부품 생태계 활성화 지원

* 소부장 특화단지 : 기존 5개(반도체 등) → 10개(광주·대구 자동차 특화단지 지정)
↳ 인허가 신속처리·인력양성·R&D 등 기업집적화 지원

○ 원활한 수출운반선 확보를 위해 해운협회-자동차산업협회 간 협조체계를 가동*하여 자동차 수출물량 증가 대응 역량 강화

* 자동차 수출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-해운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('23.3)

○ 자동차 수출시 전용 운반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는 경우, 부담하는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요건 완화* 현장애로

* **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(35%) 요건:** (現) **같은 날 같은 장소**에서 **검사**한 경우 → (改) **일주일 내 검사 물량**에 할인 적용으로 확대

> 현장의 목소리 **자동차 수출기업 : 자동차 전용 선복 부족으로 컨테이너선을 활용한 수출 시, 차량 연료 관련 위험물 검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이 큼(자동차 1대당 약 11,633원)**

□ [석유화학] 나프타 관세율 0% 연말까지 적용 + 해외규제 적극 대응

○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기초원료인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율 인하(0.5→0%)

○ 주요 수출국 수입규제 관련하여 업계·협회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미국, 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

* 국가별 수출비중('22년, %) : (중국)38.1 (미국)8.2 (베트남)5.9 (인도)5.5 (일본)4.1

- '민관합동 비상대응 협의체'를 출범('23.9월)하여 업계의 사업 전환 및 경영애로 해결 지원

○ 국내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연간 제조·수입량 '0.1톤 → 1톤 이상'으로 조정 현장애로

> 현장의 목소리 **무역협회, 석유화학협회** : 일부 화학첨가제 제조·수입업체의 경우 100가지 넘는 물질에 대한 등록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, 일부 모델은 단종을 고려

□ [일반기계] 수출국다변화 및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역량 강화

○ 범부처 '한-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'('23.9) 파견 계기, 민·관 합동 '건설기계 수출사절단'을 구성하여 사우디 등 중동국가에 파견(연내)

○ 중동 건설프로젝트 수주시에 한국 건설기계 수출 연계*를 위해 건설사-건설기계 업계간 자율협의 유도('23.下) 현장애로

* '23년 상반기 기준 해외건설 수주 중 중동지역이 38%를 차지하나 영업방식의 어려움으로 건설기계 수출 중 중동 비중은 6.5%에 불과

> 현장의 목소리 **건설기계 수출기업** : 대리인을 통해 영업을 해야하는 중동의 특성 상 건설붐을 건설기계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건설기계업체가 한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필요

○ 공작기계 미국 수출을 위한 전략물자 포괄허가* 절차·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'전략물자수출입고시' 개정 추진('23.下)

* 수출업체는 특정 품목과 사용자에 대한 개별수출허가와 불특정 품목·사용자에 대하여 **포괄수출허가**(민수용 한정) 진행 가능

2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

◇ 디지털, 에너지, 콘텐츠, 농수산식품, 녹색산업 등 수출 확대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 유도

□ (디지털) 우수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적 지원

○ 디지털 新제품·서비스에 대한 ICT 융합품질 인증*을 확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 확대 지원

* ICT 융합 新기술의 조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하여 시험·현장평가 등을 거쳐 품질인증 부여(기계·물류, 건설, 의료 등 12대 ICT 융합 분야 대상,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

▪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시 ICT 융합품질인증 제품에 가점을 부여하여 디지털융합 우수제품의 해외진출 촉진('24~)

○ 디지털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'브랜드K[1]' 상표 부여대상에 ICT/SW 서비스 추가[2]

1」 독자적 브랜드파워가 약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'브랜드K' 공동상표 부여

2」 (現) 디지털 소비재 항목에 한정 → (改) ICT/SW 서비스 추가

○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입점 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 확대

▪ 온라인 수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미국·중국 등 주력시장 중심에서 중동·인도 등 신시장까지 확대

* (現) 아마존.이베이(美), 라쿠텐(日), 타오바오.티몰(中), 라자다(아세안) 등 중심
(改) 중동(Noon), 인도(플립카트) 등 까지 확대

▪ 경쟁력을 갖춘 SW 분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현지화, 홍보·마케팅 등 지원*

* 아마존, MS 등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의 마켓플레이스에 국내기업의 SaaS 등록, 클라우드 테크 컨퍼런스 전시·참여 등 마케팅 지원

○ '초격차 스타트업 1000+[1]' 대상에 디지털 분야[2] 신규 선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('24~)

1」 민간 중심의 검증을 통해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스타트업 선발 및 사업화·글로벌 진출 지원

2」 선발분야: (現)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모빌리티, 친환경·에너지, 로봇
(추가) 빅데이터, AI, 사이버보안, 네트워크 등

○ ICT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「민·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*」 파견('23.9~10월)

* ①고위급 면담, ②기업 전시회(현지행사와 연계), ③현지 파트너십 등 추진

○ 전략물자 비중이 높은 SW 분야 전략물자심사 지원 강화 현장애로

현장의 목소리 SW협회 : ①SW수출의 50% 이상이 전략물자, 연간 3천건 이상 신청 → 심사에 한달이상 소요, ②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절차 미이행으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 발생

▪ SW 분야의 전략물자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원 내 SW 분야 판정 인력을 보강

* (現) 전략물자 판정에 최대 30일 소요 → (改) 20일 이내로 단축

▪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,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 제공('24~)

▪ 새로운 SW 수출유형인 서비스형 SW(SaaS)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판정기준 개선방안 마련*('24~)

* Saas(Software as a Service) 유형에 적합한 수출통제 법제연구, 사례발굴 등 추진

□ [화장품] K뷰티의 높은 관심을 활용하여 현지 홍보관 등 마케팅 강화

○ 방한 외국인, 수출 유망국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관('23.4분기), 해외 판매장('24~) 등 확대 운영

* ①K-뷰티 홍보관 1개소 추가운영('23.4분기) 및 해외화장품판매장 2개소 신규운영('24), ②K-문화 해외상설홍보관 1개소 추가 참여('24)

□ (콘텐츠)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+ 제작 지원 신기술 인프라 조성

○ 글로벌 시장 공략 **K-콘텐츠·미디어 육성**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등 **운용상 제한**[1]이 없는 **1조원 규모 'K-콘텐츠 전략 펀드' 조성**[2] **추진**

1」 **대형 프로젝트,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** 등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→ **대형 콘텐츠**,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제고

2」 '24~'28년 간 총 1조원 규모 조성 계획('24년 0.6조원 조성)

○ 차세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LED, 시각 특수효과 활용 촬영 등 **대형 콘텐츠 제작지원용 신기술 인프라** 구축('24~'25년 250억원)

○ **K-팝 음원의 해외유통 절차간소화**를 위해 현재 각각의 코드 **발급절차**가 필요한 **국내·국제표준코드 동시 발급** 추진 현장애로

> 현장의 목소리 **한국음악콘텐츠협회** : 음원 유통은 국내(UCI), 해외(ISRC) 등 유통방안에 따라 각각의 코드 발급이 필요하나, 코드별 발급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실무적 어려움 존재

○ **1인 창작자**의 **기획력 향상** 및 **창작 기회 제공**을 위해 기존 **웹툰 해외 컨퍼런스·마켓 참여** 등 **지원 대상**에 **포함** 현장애로

> 현장의 목소리 **한국만화가협회** : 현재 기업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개인 작가들의 기획력 향상을 위한 해외 컨퍼런스·마켓 참여 등 필요

□ (스마트팜) 수요가 많은 사우디 등 시장 개척 집중 지원

○ 우리 **스마트팜 기술**에 대해 관심이 높은 **사우디 시장 개척·진출**

- **스마트팜, 식품, 건설·플랜트 기업**을 중심으로 **제3차 한-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** 파견('23.9)을 통한 사우디 신시장 개척 지원

* B2B 상담회(30개社),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(한·사우디 정부·기업 60여명), 농식품 시식회

- **현지 수요가 높은 품종** 위주로 **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**

* (기조성) 베트남·카자흐스탄 → ('23) 호주(12월 준공), 사우디(신규) → ('24) 신규 1개소

□ [농수산] 바우처 확대, 물류체계 개선 + 물류비 · 마케팅 · 분쟁 지원

○ 농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'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'를 대폭 확대('23년 44→'24년안 328억원)하고, 지원항목(메뉴판*) 다양화

* (現) 컨설팅, 제품개발, 출원, 인증, 판촉·홍보 등, (추가) 세무 자문, 온라인몰 입점 지원 등

○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까지 수출 全단계에 걸친 농수산식품 수출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신선도 제고 및 물류비 절감

▪ 농식품 수출단계별 저온유통, 신선도 유지 기술이 적용된 컨테이너, 해외 공동물류센터·콜드체인* 지원

* 공동물류센터 : **독일, UAE** 신규 개소, 콜드체인 : **인도네시아** 신규 개소

▪ 수산식품의 중국 내륙지역까지 냉동·냉장 운송비 지원 및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업체의 전자상거래 전용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

○ 딸기, 포도, 배 등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신선품목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[1] 물류비 지원비율 확대(최대 15% → 25%)[2] 현장애로

1」 주요 신선품목 출하기(딸기: 11~4월, 포도: 8~1월, 배: 8~1월) 계기 집중 지원

2」 지원비율: 최대 15%(중앙 5%+지자체 10%) → 25%(중앙 10%+지자체 15%) 확대 (10%p↑)

> 현장의 목소리 **신선품목 수출업체 : 수출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딸기 등 신선품목에 대해 추가 물류비 지원 필요**

○ 온라인·한류 등 트렌드와 농수산식품 연계 강화로 소비 저변 확대

▪ 주요 농수산식품 품목[1]에 대해 드라마 등 K-콘텐츠 연계 간접광고·홍보콘텐츠 제작(K-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)[2] 및 판촉·홍보 추진

1」 (농) 딸기, 포도, 배, 파프리카, 김치, 쌈장, 떡볶이, 스낵류, 인삼, 펫푸드 총 10개 품목
(수) 김(김밥김, 자반, 부각 등), 연어칩, 소금, 어묵, 게장, 명란, 어육소시지 등 7종류

2」 식품, 소비재 등과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간접광고·홍보콘텐츠 제작비용 지원

▪ 수출업체의 **온라인 시장진출 지원**을 위한 **'온라인몰 한국식품관'**을 **확대**('23.9월 日·獨 추가, '23년 총 15개소)하고, **지자체 연계*** 강화

* '한국식품관'(中티몰 등 4개소) 내 '지자체 우수식품관' 개설(수도권·강원·경상·전라·제주·충청)

▪ 해외 주요 **라이브커머스 플랫폼**과 **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**한 **한국수산식품 홍보** 및 실시간 온라인 방송판매 추진

* 기존 상온 품목(김, 통조림 등) 위주의 라이브커머스 한계를 보완,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매장 구매리뷰 등 팬덤커머스 연계 추진(4개국 60회 이상, 120개 제품)

○ 농수산 분야 **해외 판로개척**을 위한 **마케팅 지원** 추진(9월~)

▪ 日·中·美·**아세안** 현지 주요 유통시장 연계 **인기 농식품 집중 판촉**(~11월)

* 日이온·코스트코, 美H마트, 中허마셴셩, 아세안롯데마트 등 2천여 개소 연계

* 배·포도 등 신선 농산물 주 출하기 계기, 한국산 식별마크(홀로그램) 부착·홍보 병행

▪ **농수산식품 수출업체** 대상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을 위한 **수출상담회·국제박람회 참가 지원**, 주요 시장 **K-Food Fair 개최**

▸ **(농식품)**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[1]·K-Food Fair[2] 개최, 국제박람회[3] 참가 지원

1」 하반기 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(BKF, Buy Korean Food, 11.15~17, aT센터) 개최

2」 日·中·美·아세안에서 수출상담회(수출업체 186여社 참여)·소비자 체험 통합 'K-Food Fair' 개최(~10월)
뉴욕(8월, 41개社), 하노이(9월, 34개社), 도쿄(9월, 42개社), 상하이(9월, 40개社), 쿠알라룸푸르(10월, 29개社)

3」 中·아세안·EU 등 주요 시장 국제박람회 내 한국관 운영(8~11월, 11회), 228개社 참가 지원

▸ **(수산물)** 수산식품 수출업체 대상 무역상담회[1] 및 국제박람회[2] 참가 지원

1」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의 1:1 수출상담 제공,
중국 상해(8월, 20개社), 미국 뉴저지(9월, 20개社), 태국 방콕(10월, 15개社)

→ 무역상담회 개최 시 지자체별 수산식품(예: 완도 전복, 통영 굴 등) 전시 공간을 별도 조성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홍보 추진

2」 국제박람회장 내 한국관 부스 설치하여 한국 수산식품 전시 등 홍보,
일본 도쿄(8월, 10개社), 중국 상하이(9월, 2개社), 중국 청도(10월, 16개社)

○ **우리 주류의 해외 모방품 방지**[1]를 위해 **주류 업계와 협의**하여 **민관 합동 피해기업 간 협의체**[2] **구성, 대응전략**(단속·소송) **마련 및 지원 추진**

1」 한국산 소주를 모방한 해외 로컬 소주가 태국 시장의 60%, 말레이시아 시장의 10% 점유

2」 피해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(모방) 상품 업자 공동대응('14년~)

□ [에너지] 중소 · 중견기업 동반 진출 + 수소기업 성장 기반조성

○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전력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시 경영평가에 반영* 현장애로

* 국산 태양광 풍력 제품을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로 인정하여 경영평가 가점 부여

> 현장의 목소리 풍력 터빈 제조업체 : 대기업·발전공기업의 해외수주시 가격 경쟁력*이 낮은 국산 기자재 사용 유인이 낮음 *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중국과 우리기업이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

○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입주·집적, 소재·부품 성능평가 및 연료전지 실증 등을 지원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* 신규 조성

* 포항 블루밸리 산단 내 연료전지 기업 집적화단지(30개社 입주 가능)로 소재·부품 검증 및 인증 등 평가 장비 구축 (1,918억원, '24~'28년, 포항)

○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 육성 촉진을 위해 R&D 투자비중 완화 등 수소 전문기업[1] 지정기준 개정[2] 검토

1」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, 수소 관련 R&D 투자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, 마케팅, 해외진출 등 지원

2」 現 수소전문기업 선정 요건(매출액 대비 R&D 투자 비중)

매출액	1,000억원 이상	300억원 이상	100억원 이상	50억원 이상	20억원 이상
R&D 비중	3% 이상	5% 이상	7% 이상	10% 이상	15% 이상

□ [원전] 국가별 맞춤형 접근, 수출역량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

○ 체코, 폴란드 등 신규원전 도입이 유력한 국가* 대상으로 금융 지원, 산업 협력 등 맞춤형 세일즈 활동 전개

* (체코) '36년 준공 목표 원전 1기 건설 예정 / (폴란드) 폴 민간 전력社 주도 원전 2기 건설 예정

○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* 지속 운영

*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, 금융기관, 공기업, 민간전문가 등 약 30여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

○ 원전 중소기업 집중지원*을 통한 독자적인 수출역량 강화

* 시장조사, 금융, 마케팅, 인증 등 해외진출 전 주기에 걸쳐 패키지 지원

□ [녹색산업] 견고한 민 · 관 원팀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수주 · 수출 지원

○ 녹색산업*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민·관 원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로 맞춤형 밀착지원 추진

* 화석에너지 대체, 에너지·자원 효율성 제고, 환경개선 재화·서비스 제공 등

▪ '녹색산업 얼라이언스*'('23.1 출범)를 중심으로 기업별 1:1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 → 금년 내 20건 이상 추가 지원

* 긴밀한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단위 사업별 지원 추진 → 환경부,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社, 유관공기업, 수출금융기관 등 33개 기관 참여

▪ 베트남(10월), UAE(11월) 등 주요 수주일정별 장·차관(환경부)을 필두로 하는 세일즈 외교로 수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

○ 녹색산업 신규 유망시장 발굴(인니, 중남미 등) 및 진출 지원 강화

▪ 개도국 등 해외 환경난제에 대한 현지진단팀*(전문가+기업) 구성·파견으로 K-환경정책을 수출하고 신규사업 발굴('23.10~)

* '23년 시범사업 : 인도네시아 물분야(10월), 콜롬비아 폐기물처리(11월)

▪ 미국 실리콘밸리 시장개척단(녹색기술 설명회 + IR Day) 파견('23.12)으로 한국 녹색 新기술의 선진시장 진출 가속화

○ 투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수주·수출기업 재원조달 지원 확대

▪ 녹색 프로젝트를 위한 녹색채권('23, 3조원) 이자를 지원하고 녹색산업 융자* 대상에 녹색산업 수출기업 추가('23.3분기~)

*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('23, 3.5조원, 평균 △1.8%p 우대), 미래환경산업 융자('23, 3.7천억원)

▪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해외 녹색산업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[1]에 수출입은행도 신규로 참여[2]

1」 국내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은 대출상품을 설계하면 금융기관이 적용한 우대금리의 50%를 정부에서 보전(기후대응기금)

2」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사업 참여 기관: (現) 산은·신한은행 → (확대) 수출입은행

2. 수출지역 다변화

1 주력시장 (미국 · 중국 · 아세안)

◇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정부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,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밀착지원을 위한 현지 지원센터 구축

□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간 협업 공고화

○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[1], 한중경제협력교류회[2]를 개최하여 양국 정부·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 적극 추진

1」 문화 콘텐츠 등 중국에 진출(예정)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의제로 적극 반영

2」 경제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정부·기업·씽크탱크 간 교류 등

○ 한미일 정상회담(8.18일)을 계기로 체결한 각국 개발금융 관련 기관간 금융협력 MOU 등을 토대로 인태지역 등 제3국 인프라 협력* 확대

* 인프라(ICT, 에너지, 항만, 공항, 교통), 탄소 중립 등 분야 공동지원 사업 발굴

○ 對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중점 추진

▪ 반도체·배터리·바이오·미래차 등 주력산업 초격차 경쟁력 유지 전략을 지속 추진하며, 중국 시장 유망품목* 진출 지원 확대

* 중국 정부의 디지털·그린 전환 정책 연계 분야 등

▪ 中 소비 트렌드 변화*를 반영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

* 1인 가구 맞춤 소비재, 프리미엄 유아용품, 한류활용 패션의류 등

□ 해외진출 적기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 + 주요 품목 현지 지원거점 구축

○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원활한 사업수주 지원

▪ 대주단[1]이 참여하는 해외투자사업의 예타 평가시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[2]하여 조사기간 단축

1」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주(금융기관 등)들이 모여서 결성한 컨소시엄

2」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 또는 우대에 관한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

↳「**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**」**개정** / '24년부터 시행

○ 해외에 현지·합작법인 설립 또는 예정인 국내 창업·벤처기업 등*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 조성('24년~)

* 예 : 해외 현지·합작법인 설립, 해외 수출비중 확대, 해외기업 M&A 추진 등

▪ 국내 ICT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현지 합작법인(Joint Venture) 설립 지원('24년 신규 10개社)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

* 미국·중국·일본·필리핀 등 전세계 18개국 현지 29개 조인트벤처 완료 성과('21~, 누적)

○ 우리 기업이 해외 물류거점을 안정적이고,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-국내기업 간 합작[1]을 통해 해외 물류센터 추가 확보 추진[2]

1」 **미국(부산항만공사), 베트남(울산항만공사) 민간 참여사와 합작 법인** 추진 중

2」 (現) 인도네시아 자바 주('21.9), 네덜란드 로테르담('21.12), 스페인 바르셀로나('22.6)
→ (改) **베트남 호치민('23.12), 미국 LA 등 추가 확보** 추진

○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해외 거점센터 구축

▪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미국 등 현지수요 발굴-매칭-검증-마케팅 지원을 위한 거점지역 협력센터* 신설·운영('24년~) 현장애로

> 현장의 목소리 **반도체 팹리스기업 : 주문형 생산방식인 시스템반도체의 특성을 고려, 미국 등 현지 신속대응을 위한 지원 센터 구축 필요**

▪ 美(LA)·일본(도쿄)에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신규 구축('24년~)

2 新전략시장(중동 · 중남미 · EU 등)

◇ 대규모 건설·플랜트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정부간 협력 + 금융지원 + 현지 거점센터 확보 + 정보제공 등 패키지 지원 추진

□ 민 · 관 합동 「원팀코리아」 활동 등을 통한 수주 역량 강화

[우크라이나, 폴란드]

○ 한-폴-우크라 3각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

▪ 우크라 재건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한-폴 차관급 협의체* 운영(9월~)

* (구성) 국토부[한], 폴-우 개발협력 전권대표[폴] / (방식) 분기별 1회 대면 또는 화상회의 개최

▪ 국토부-[우크라]인프라부 간 화상협의[1] 지속, GICC[2] 우크라 재건 특별세션(9.20) 운영 등으로 재건 수요 파악 및 시범사업 협의[3]

1」 '23.6월 이후 화상회의 총 10차례 개최(9.1 기준)

2」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(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)

3」 한-우 정상회담(7.16) 후속 조치로, 인프라·에너지·IT 등 다양한 재건사업 참여 방안 협의

○ 재건 계획 수립부터 프로젝트 수주까지 재건 과정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 대상 KSP[1], EIPP[2] 사업 발굴 추진

1」 Knowledge Sharing Program(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)

2」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(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) : **G2G 차원의 심화된**(매년 3~5건) **중장기**(5년 이내) **정책자문 프로그램** → 우즈베키스탄, 미얀마, 케냐, 헝가리, 에콰도르, 타지키스탄 사업 수행 중

▪ KSP를 통한 사전연구·사업발굴 후 EIPP를 통한 프로젝트 기획 및 구체화 등 패키지화하여 단계적 접근 추진

[사우디, UAE 등 중동지역]

○ 향후 원팀코리아 사우디 추가 파견을 통해, **네옴**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'(가칭)한-사 인프라위원회' 추진 등 **고위급 교류 확대**

* 사우디의 최고위급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**고위급 교류 지속 추진**을 통한 **우호적 진출환경 조성 필요** → 네옴 서울 전시회 旣개최('23.7.24-8.3)

▸ (**그간의 성과**) 정상외교('22.11), 원팀코리아 3차례 파견('22.11, '23.1, '23.6)을 통해 우리기업이 **6.5조원 규모 '아미랄 프로젝트' 수주**('23.6)

※ 동 사업은 **우리기업의 사우디 진출 이래 최대 규모 수주실적**

○ **고유가**를 기반으로 **중동지역**에서 대규모 건설·플랜트 사업의 **발주**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**중동지역 해외수주 지원 강화**

→ **고위급 교류** 등 **G2G 협력 강화** 및 기본여신약정(F/A)[1] 체결 대상국 확대[2] 등을 통해 적시 자금조달 지원

1」 Framework Agreement(기본여신약정) : **주요 발주처와 지원한도, 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**하여, **우리기업의 수요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에 금융지원**

2」 **(旣추진)**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(ADNOC)('22.1월, 50억불), 사우디 국영석유기업(ARAMCO)('23.3월, 60억불) → **(확대) 他 중동국가 추가 확대** 추진

[주요 자금조달 지원 사례]

❶ UAE 슈웨이핫 4단계 해수담수화 사업 개요

▸ **(사업비)** 7.3억불 ▸ **(사업기간)** '23~'26(건설 2.5년) + 운영관리 30년

▸ **(내용)** 70MIGD(약 105만명이 하루에 사용 가능) 규모의 담수 플랜트 건설·운영

❷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개요

▸ **(사업비)** 50.7억불 ▸ **(사업기간)** '23~'27(건설)

▸ **(내용)** 연 165만톤의 에틸렌 생산시설(패키지1) 및 동력·간접시설(패키지4) 건설

[파라과이]

○ 우리 철도 역사상 최초로 **패키지**(건설+운영) **진출사례**가 될 **아순시온 경전철 사업**(6억불 규모)에 대한 **우리기업 참여 지원 강화**

* 파 대통령 취임(8.15) 경축특사 계기,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우리기업 참여 지원 협의

▪ GICC에 파라과이 공공사업부 장관 초청 등 **고위급 교류 확대**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사업 참여 **법적기반*** 마련 지원

* 최소수익 보장 조항, 파라과이 공공사업부와 KIND간 실시협약 체결 등

□ 현지 지원센터를 확대 구축하고, 전략적 자금 지원 추진

○ 국내기업의 해외수주 밀착지원을 위해 핵심 수주대상 국가 내 현지 지원센터 구축 확대

▪ 사우디 등 신전략시장에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·운영

▸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정보수집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해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(現 인니, 베트남, 케냐, 방글라데시 4개소 운영 중)

- 사우디 건설·투자개발 관련 법령 번역·해석, 건설시장 환경 조사·분석 등 심층정보 제공 지속('23,4월~)

▪ 원전·방산·플랜트 등 수주프로젝트 발굴 기능 강화를 위해 KOTRA 해외무역관 중 거점무역관 대폭 확대

▸ **(원전)** 거점무역관 확대(10→16개소) ▸ **(방산)** 선도무역관 확대(20→31개소),
▸ **(플랜트)** 플랜트 수주지원센터(7→11개소)

○ 고위험·저신용국, 대규모 자금 소요 산업분야에 전략적 자금지원

▪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,500억원(정부 1,000억, 수은 1,500억) 추가 조성하여 고위험·저신용국*(국가신용도 B+ 이하) 수주사업 지원 확대

* 당장의 신용도는 낮지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아프리카·중남미 등 시장 중점 지원

현장의 목소리 **해외건설협회 : 이라크, 나이지리아 등 초고위험국 대상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이 소진되어 추가 마련 필요**

▪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을 위해 글로벌 PIS*펀드 1.1조원 추가 조성('24~'27년)

* Plant, Instructure, Smart city Fund

▪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 자본금 확충(5천억→2조원)을 통해 해외 주요 프로젝트 지분참여 활성화

▪ 플랜트·인프라·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(무보)은 '24년 20조원으로 확대('23년 17.8조원)

3. 수출 인프라 보강

◇ 무역금융·마케팅·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, 통관·물류 규제개선 등 수요자(수출기업)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선 추진

1 무역금융

□ 민간 · 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.4조원 무역 · 수출금융 공급

○ 수출기업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·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.4조원 무역·수출금융 공급

▪ ❶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.6조원(364.7조원 중 206.1조원 旣공급) 및 ❷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에 17.4조원 수출금융 공급

[주요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] ※ 同 지원규모는 소진시까지 적용
- (반도체 등 초격차 주력산업 지원: 11조원) 설비투자·R&D 등 광범위 지원
- (신규수출국 진출 지원: 3.3조원) 수출다변화 기업 대상 신·기보 특례보증 등
- (해외수주 금융지원: 0.3조원) 해외 프로젝트 협력업체 특례보증(신보)

※ 그 외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(1조원), 공급망 대응펀드(0.5조원), 전략품목 수출기업(1.3조원)

▪ 이와 함께,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❸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.4조원 신설·공급

- 대출금리는 최대 △1.5%p까지 우대하고, 보증료도 최대 △0.8%p까지 우대하여 수출기업 비용부담 경감

- 또한, 완전 보증 상품, 만기 자동연장 상품을 공급하고, 수출 준비중인 기업 또는 리쇼어링 기업까지 우대대상을 확대

현장의 목소리 수출기업 : ①공급망 문제, 무역규제 등으로 수출국 다변화에 대한 지원 필요, ②고금리 지속으로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재 전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, ③반도체·이차전지 등 수출전략 산업에 대한 폭넓은 추가지원 필요

2 마케팅 · 전시회

□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및 신규 기업 참여 경로 확대

○ 업종별 컨소시엄 또는 개별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수·지원규모 확대*

* (기업수) 5,478→5,646개社, (기업당) '23년12.6→'24년15.1백만원(+19.8%)

○ 수출실적 없이도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*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 발굴·지원 현장애로

* 예 : 해외전시회 참여 대상에 **신기술 창업기업을 일정비율 이상** 포함

> 현장의 목소리 **무역협회 : 정부 해외전시회 참여지원사업의 경우 수출실적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어 전통 소비재·제조업 분야에 비해 신기술 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**

○ 해외전시회 설치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전시회 퀄리티 제고를 위해 설치업체가 받는 선급금 지급률* 상향조정 추진 현장애로

* (現) 계약금액의 30~50% 지급 → (改) 40~60% 지급 (+10%p 상향)

> 현장의 목소리 **중소기업중앙회 : 갑작스런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중소 해외전시회 설치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시 설치업체가 받는 선급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할 필요**

□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채널 확대 + 마케팅 방식 다양화

○ 10대 수출 유망국* 대상으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바이어 매칭 등 수출성과 창출 지원

* 시장조사(무역관)를 토대로 유망국 풀 마련 후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사절단 규모 확정

○ 뮤직비디오,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K-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[1] 대상인 K-콘텐츠 범위에 포함[2]

1」 식품, 소비재 등과 한류콘텐츠를 연계한 간접광고·홍보콘텐츠 제작비용 지원

2」 (現) 드라마, 예능만 지원 → (改) 뮤직비디오,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지원

○ 수출여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마케팅·판촉·전시회 등 참여 지원

* 전문무역상사 해외 유통망(GS글로벌, 롯데마트 등)을 활용한 해외 동반 판촉전, 전문무역상사 전용 글로벌 상담회 참여 지원 등

3 수출바우처

□ 수출바우처 규모 확대 + 수요자(수출기업)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

○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'24년 지원규모[1]를 확대하고, 수출바우처 지원 항목(메뉴판)을 추가 확대[2] 현장애로

1」(지원규모) '23년 1,441억원(3,473개社) → '24년 1,679억원(3,984개社)

2」(現) 디자인 개발, 홍보, 전시회, 인증 등 14개 분야
(추가) ❶수출에 필요한 유해물질 검사, ❷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

> 현장의 목소리 무역협회·수출기업 등 : ①해외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바이어의 A/S요청이 있을 경우, 해당 국가에 사무실이 없는 중소기업이 A/S를 직접 대응하기 어려움 + ②A기업은 유해물질 규제 대응 등을 위해 연간 1.5억원의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, 현행 수 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유해물지 검사 지원항목 제외

○ 수요자(수출기업) 중심으로 수출바우처 제도 사용편의 개선

▪ 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(산업부)의 신청시기를 年 1회 → 2회로 분산하여 적시지원 유도 현장애로

> 현장의 목소리 수출기업 건의사항 (원스톱수출119) : 수출바우처 신청 정보를 조기 취득하지 못한 기업이나 신청시기 도과 이후 수출환경에 변화를 겪은 기업은 신청이 어려움

▪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지정방식을 개편*하여, 수출기업들의 실제 선호를 반영한 수출바우처 사용을 유도 현장애로

* 수출기업이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를 사후적으로 수행기관으로 인정하는 사후정산 방식 추가 확대(무역보험·보증, 서류대행·현지등록 등) + 부정사용 관리 강화

> 현장의 목소리 수출기업 등 :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 제한되어 있어,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,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수행업체 선정에 한계

4 해외인증

□ 정부간 협력을 통한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 확대

○ 의약품 자동승인[1] 등 **신속 시장진입** 위한 국가간 규제협력[2] 추진 현장애로

1」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상대 국가에 허가신청 시,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허가 획득 가능 / 2」 (現) 에콰도르 → (改) 남미국가 등 추가 검토

> 현장의 목소리 **제약·바이오협회 : 에콰도르 外 다른 남미국가에 대해 자동승인제도 및 신속 심사 제도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 추진 요청**

○ **의약품 수출시 국내 허가자료를 활용해 수출국 허가절차를 간소화**할 수 있도록 **상호인정협정 체결국 확대*** 등 추진 현장애로

* (예) 한-싱가포르 국내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(GMP) 평가결과 상호인정 협정 체결 추진 등

> 현장의 목소리 **제약·바이오협회 :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(GMP) 상호인정협정 체결국을 유럽·브라질 등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(PIC/s) 가입국까지 확대**

□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현장 애로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

○ **(애로해소)**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**간담회, 설명회** 등을 통해 **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**하고 **해소 지원**

▪ 해외인증 현장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한 **유관기관 협력* 강화**

*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중(코트라, 중진공, 시험인증기관 등 12개 기관), 산단공 입주업체의 애로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산단공-국표원 협약 체결(8.31.)

○ **(밀착지원)** 해외인증 준비, 진행 중인 기업의 수출을 위해 **전문가를 1:1 매칭**하여 **신청부터 획득까지 전주기 밀착 지원**

▪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심사결과 기술자문 등 지속 관리

* (정보) 수출품목 인증정보 제공 → (신청) 신청서류·절차 지원 → (심사) 심사결과 자문

○ **(역량강화)** **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 강화**를 위해 품목별·국가별 **해외인증을 교육**하고, **전문가 양성 및 가이드북 보급**

* '23년 화장품, 전기차충전기 등 20품목 가이드북을 제작, 전문교육에 활용

□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한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추진

○ 규제자유특구[1]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고도화[2]하여 해외 실증부터 인증·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

1」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·서비스 실증을 위해 일정 조건 下 규제를 유예·면제('19년~)

2」 기존 규제 자유특구 중심으로 2개소 시범지정('23.10월), 해외 실증거점(美·佛·日) 지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「지역특구법」 개정 추진(~'24.上)

실증 특례	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·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("전면적 네거티브 규제")
실증	지자체, 해외 실증 거점(美·佛·日)에서 실증 지원
인증	UL(美), CE(BV(佛), TÜV(獨)) 등 해외 인증기관이 설계 단계부터 성능검증, 시험·검사까지 직접 컨설팅

5 통관 · 물류

□ 보세제도 활용성을 넓히고, 물류지원 인프라 확충

○ 첨단산업 수출에 기여하는 보세공장·창고 제도 활용 확대

[보세공장의 의미]

▸ **보세공장**은 **외국 원재료**를 **보세상태**에서 **가공 후 과세 없이 수출 가능**
→ **외국 원재료 활용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 중심 활용**(162개 운영 중)

▸ **주요 첨단분야 수출의 약 90%**[1],
'22년 전체 수출액 중 23%[2]가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

1」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 비중('22) : 반도체 93%, 조선 92%, 바이오 91%, 디스플레이 88%
2」 '22년 전체 수출액 6,838억불의 약 23%가 보세공장 수출(1,571억불)

▪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(10월~)

중소기업 보세공장 설립 허가 기준 개선안(10月 시행)

	현 행	개 선
시설 기준	▸ 창고 출입문 너비·높이, 차양의 너비·높이 등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	▸ **화물의 손상방지 시설**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**만점** 부여
관리 기준	▸ 화물관리 전담부서 구성 여부, 보세사 채용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	▸ **화물관리 전담부서 구성 항목 폐지, 보세사 1인** 이상 채용 시 만점 부여
자가 여부	▸ 토지, 건물, 장비 등의 자기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	▸ **중소기업은 임차시설**을 이용하더라도 미감점

○ 중계무역·환적 등 **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**을 위해 **보세창고**의 특허요건 및 보관기한 등 **규제**를 **완화·시행**(10월~) 현장애로

보세창고 규제 개선안(10月 시행)

	현 행	개 선
특허 요건	▸ 해당지역 물동량 기준* 적용 * 최근 1년 반입물량이 최근 3년 평균 90% 이상	▸ **산업단지***는 물동량 기준 미적용 * 국가·일반·도시첨단 산업단지에 한함
	▸ 출입문차양막 크기, 도크, 지상층 규제적용	▸ 해당규제 **폐지**
보관 규제	▸ 기한 : 최대 1년(6개월+6개월 범위 연장)	▸ 중계무역 물품은 **보관기한 미적용**
	▸ 내국물품 보관 시 사전신고	▸ 대장기록 등 **자율관리**
작업 범위	▸ 운송도중 파손·변질로 보수 ▸ 통관목적 개장분할구분합병원산지표시 등 ▸ 중계무역 수출·보세판매장 공급목적 제품검사·선별·기능보완등	▸ 보존작업·선별·용기변경·포장·상표부착·단순조립·검품·수선 등의 활동* * 품목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

현장의 목소리 **물류업체** : 보세창고는 지역의 물동량 기준과 시설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보관기간 및 작업범위 등이 제한되어 있어 중계무역·환적 등 물류 유치에 한계

○ **안정적 수출입 물류 지원**을 위한 **인프라 확충**

▪ 인천 신항 1-1단계 항만배후단지 준공(11월), 부산항 신항 신규 터미널 준공(12월)* 등 **항만 인프라 적기 확충**으로 **글로벌 물류 경쟁력 확보**

* 신항 서'컨' 부두 : (접안능력) 5만톤급 3선석, (연간 하역능력) 195만TEU, (선석 길이) 1,050m

○ **부산항 신항 터미널 內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 확대***를 위해 **터미널운영社-수출화주** 간 **협의 지원**('23.9월~) 현장애로

* (現) **3~4일** → (改) 경영여건이 열악한 **중소 화주 대상으로 5일로 확대** 검토

현장의 목소리 **무협·경총** :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 사전반입 가능 기간이 축소되어 외부 야적장 보관료, 상·하차료 등 물류비 부담 증가

□ 수출입 기업의 우수업체 인증, 과세환급 절차 · 제출서류 등 간소화

○ **중소 수출기업**은 통관상 혜택이 제공되는 **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**(AEO*) 인증시 **심사서류 100종 이상 축소**(500→350여종) 현장애로

* (**A**uthorized **E**conomic **O**perator)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'**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**'(AEO)로 **공인** 후 **신속통관, 검사생략** 등 **혜택 제공**

현장의 목소리 **중소·중견 수출기업** : 통관에 큰 도움이 되는 AEO 공인 취득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서 AEO 제도 활용이 곤란

○ **수출물품**이 **상대국**에서 **통관상 혜택**(신속통관·검사축소)을 받을 수 있도록 **사우디와 상호인정약정**(AEO MRA*) **체결**('23.9월) 현장애로

*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(AEO)에 대해 통관상 혜택을 상호제공키로 한 약정으로 주요 교역국인 미·중·일 등 총 22개국(수출비중 70.1%)과 기체결

> 현장의 목소리 **수출기업 : 수출통관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중동지역(사우디)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** * 기업설문 결과 중동지역 최우선 MRA 체결 희망

○ **수출기업이 간편하게 관세 등을 환급**받을 수 있도록 **제출서류 축소, 업무전산화** 등을 통한 **관세 환급절차 간소화***('23.9월) 현장애로

* ①은행 통폐합 등에 따른 환급계좌 변경 시 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생략, ②환급신청 증빙서류 제출방법 변경(종이서류→전자제출), ③성실업체(AEO) 환급서류 전산 자동발급 등

> 현장의 목소리 **수출기업 : 매해 관세환급을 위해 다수의 문서를 별도로 작성이 필요해 별도 인력 배정 등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**

○ 국내 사용 없이 **해외 재수출 목적**으로 **방송통신기자재 수입시 적합성 평가* 면제확인 절차를 생략**하여 신속 통관 지원('23.下) 현장애로

* 방송통신기자재로 인한 전파간섭 방지 등을 목적으로 기자재 제조·판매·수입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

> 현장의 목소리 **대한상의·경총 :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시 동일 물품을 해외 재수출 목적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 건별로 「전파법」 상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해 수입통관 소요시간 증대**

○ 수출기업의 **FTA 원산지증명**을 **간소화**하는 **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**(EODES*)을 **인도와 신규 개통**('23.10)

*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시 수입국 세관에 '종이' 원산지증명서 제출 불요 → 절차 간소화, 물류비용 절감,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관련 통관애로 예방

6 인력 확보

□ 외국인력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, 다양한 분야로 도입 확대

○ 금년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확대(E-9 +1만명, E-7-4 +3만명)하고, 현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'24년 쿼터 지속 확대 추진

* (E-9) 기본 쿼터 11→12만명, 업황 변동에 따른 탄력 쿼터 1→2만명+α로 확대

○ 비전문외국인력(E-9)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대폭 확대*하고,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한 허용업종 지속 확대 추진

* **(제조업)** 9~40명→18~80명 **(농축산업)** 4~25명→8~50명 **(서비스업)** 2~30명→4~75명

▪ 발전소, 제철소, 석유화학공장 등 플랜트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외국인 비전문취업(E-9) 허용 방안 검토(~12월, 고용부·국토부·산업부 공동) 현장애로

* **(산업부)** 플랜트 현장의 기술유출 등 보안 유지 가능성,
(국토부) 현장 외국인력 수요 파악 등 선결 검토

현장의 목소리 **한국플랜트산업협회 : 격오지 근무와 높은 위험도 등으로 인해 신규인력 유입이 부족한 상황이나, 발전소, 제철소, 석유화학공장 건설업의 외국인력 고용 제한**

▪ 체류기간 제한 없는 숙련기능인력(E-7-4)으로의 전환요건 간소화*, 기업체 추천시 가점 부여 통해 숙련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

* 전환시 심사 요건을 평균소득, 연령,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순화하고, 부처·지자체·기업체 추천, 장기근속,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 등에 가점 부여

4. 현장애로 해소

◇ **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 등 애로 발굴 체계 강화 +**
경제단체·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애로 즉시 개선

□ 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(월2회), 기업방문 컨설팅 신설(9월~)

○ **(원스톱 수출 119 운영)**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**민·관 합동팀**이 직접 찾아가는 **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**(월 2회)

1」(국가산단) 수도권(6월, 반월·시화) → 충청·강원권(7월, 오송) → 경상권(9월, 구미) → 전라권(10월, 광주) 등

2」(지방산단) 보령(5월)→충주(6월)→나주(7월)→옥천(8월)→인천(9월)→안동(10월) 등

▪ 유망 수출기업* 현장 방문 프로그램인 「수출 119 기업방문 컨설팅」 신설하여, **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**(9월~)

* 중기부 지정 유망 수출기업 대상, 지원단-유관기관 합동으로 찾아가는 1:1 수출 상담

▪ 수출기업 대상 **주요 수출애로**(인증, 금융, 바이어 발굴 등) 관련 **「수출지원 정책 설명회」 개최**(9월~)

○ **(컨벤션 연계 애로 해소)** 대규모 전시회 등과 연계한 **수출 상담회***, **수출기업 간담회** 통해 **수출기업의 애로 청취·해소 활동** 지속

▪ 컨벤션 참가 **해외바이어**와 **비즈니스 미팅** 통한 판로개척도 지원

* (8.30~9.1일) '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' 연계 핀테크 수출기업 상담회
(9.14~15일) '국제병원-의료기기 박람회' 연계 의료기기 수출기업 상담회
(9.21~23일) '에듀테크 코리아 페어' 연계 에듀테크 수출기업 상담회
(10.18~19일) '붐업코리아' 연계 수출기업 상담회 등

○ **(신산업·서비스 수출지원)** 수출 유망 신산업* 및 서비스** 분야 **협업체계**를 구축, **분야별 수출기업 간담회** 및 **1:1 상담** 추진

1」(8월) 수소, 드론, (9월) 로봇, 전기차 등 신산업분야 스타트업, 협단체 간담회

2」(9월) 관광, (10월) 게임, (11월) 헬스케어, (12월) ICT 등 수출기업 간담회

○ **(수주 지원)** 원활한 수주 환경 조성 위한 **외교 네트워크 구축**

▪ 해외 수출·수주 관련 건의사항 수렴 및 **외교적 지원 필요한 국가** 대상 **주한 대사관 협의** 진행

1」 볼리비아(5월) → 우즈베키스탄·베트남(6월) → 방글라데시(7월) → 파나마·엘살바도르·니카라과·코스타리카·온두라스 등 중미 FTA 5개국(8월) → 과테말라(9월) 등

2」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중미 5개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추진('23말)

□ 해외 영업지원, 수출기업 우대,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규제 정비

○ **(해외영업 지원)** 위험국가(이라크 등) 방문시 요구되는 **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절차**를 **간소화**하여 **원활한 해외 비즈니스** 활동 지원

▪ 해당 위험국가 방문 중 숙박 장소 등 **경미한 일정변경**인 경우 **신속 승인**(1개월→7일내) 조치

> 현장의 목소리 **수주기업 : 수주를 위해 위험국가(이라크 등) 방문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필요 → 경미한 일정 변경인 경우 신속한 승인 건의**

○ **(조달 인센티브)**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수출실적에 따른 **평가 배점 차등화**를 통해 **수출 우수기업 우대**

* (現) 수출실적(3년 내 10만 달러 이상),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(G-Pass) A·B등급 기업 단일 가점 → (改) 수출실적, G-Pass 등급에 따라 가점 차등화

> 현장의 목소리 **중소기업중앙회 : 조달청 수출 우수기업 평가 시 간접 수출실적을 반영하고,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 추가 우대 건의**

Ⅲ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

1. 수출 품목 다변화

1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	추진시기
• 국가첨단 전략산업 분야 금융·보조금 지원 강화	산업부	‘24년
• 용인반도체 국가 산단 조기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	기재·산업·국토	’23.10월~
• 반도체 특성화대학 확대(’23년 8개→’24년 18개)	교육부	’24년
• 반도체 단기 교육과정(부트캠프) 확대(’23년 10개→’24년 27개 내외)	교육부	’24년
• 3,000억원 규모 ‘반도체생태계펀드’ 조성	산업부	‘23.下
•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	교육부	’24년
•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(포항)	산업부	’24년
• 2,000억원 규모 차세대전지 R&D 신속 예타 추진	산업부	‘23.下
• LFP 배터리, 나트륨 배터리 등 개발을 위한 신규 R&D 추진	산업부	‘24년
• 소부장기업들의 실증을 위한 배터리 파크 구축	산업부	계속
• 글로벌 바이오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신규 구축	복지부	‘24년
•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	산업부	계속
• 주요국 무역관 內 K-바이오데스크 7개소 설치	산업부	‘24년
• 보스턴-코리아 프로젝트 추진	과기·복지·산업부	’24년
• 해외 현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미국·영국과의 국제협력 추진	복지부	‘24년
• 바이오헬스 릴레이 수출설명회 개최(미국, UAE, 인도네시아)	복지부	’23.9~11월
• 해외 바이어 초청 ‘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’ 개최	산업부	’23.9월
• EU CPHI 한국관 운영	산업부	’23.10월
• 의약관련 국제기구 입찰정보 신속제공 및 신청서 작성 지원	복지부	계속
•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구축(천안)	산업부	’24년
• 미래차용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	산업부	계속
•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신설	산업부	‘24년
• 디스플레이 산학연계 인력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 4개교 설치	교육부	’24년
•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 신속운행 지원	국토부	’23.下~
•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설명회 개최 및 이행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	산업부	’23.9월
•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한-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	산업부	’23.9월
•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사업추진	산업부	계속
• 철자원 산업육성 전략 마련	산업부	‘23.4Q
• 무보 RG 특례보증 신규 2,000억원 공급	산업부	‘24년
• 단순노무인력(E-9) 조선업 별도 쿼터 확대 검토	고용부	’24년
• 조선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공제사업 적용 범위 확대	고용부	’24년
•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 신규 설립	산업부	’24년
• 친환경 선박 인증 신청 주체 확대(조선사 추가) * 친환경선박 인증 규칙 개정	해수부	’23.下
• 한-인니 e-모빌리티 협력 MOU 체결	산업부	’23.9월
• 자동차 수출 컨테이너 위험물 검사 수수료 할인 확대	해수부	’23.下
• 석유화학 민관합동 비상대응 협의체 출범	산업부	‘23.9월
•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	환경부	’23.下
• 민관합동 건설기계 수출사절단 구성, 중동국가 파견	산업부	’23.下
• 전략물자 포괄허가 절차·심사 개선(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)	산업부	’23.下

2 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	추진시기
• 디지털 新제품·서비스에 대한 ICT 융합품질 인증 확대	과기정통부	'24년
•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시 ICT 융합품질 인증 제품에 가점 부여	산업·중기·과기	'24년
• 브랜드K 상표 부여대상에 ICT/SW 서비스 추가	중기부	'24년
•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중동·인도 등 신시장까지 확대	중기부	'24년
• SW 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입점 지원	과기정통부	'24년
• 초격차 스타트업 1000+에 디지털 분야 신규선발·글로벌 진출 지원	중기부 등	'24년
• 미국·중동에 「민·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」 파견	과기정통부	'23.9~10월
• 전략물자관리원 내 SW 분야 판정 인력 보강	산업부	'24년
•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, 대응 가이드 등 제공	과기정통부	'24년
• 서비스형 SW(SaaS)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방안 마련	과기정통부	'24년
• 국내 화장품 홍보관 확대 운영	복지·문체부	'23.4Q~
• 국내 화장품 해외 판매장 확대 운영	복지부	'24년
• 1조원 규모 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	문체·과기정통부	'24년~
• 대형 콘텐츠 제작지원용 신기술 인프라 구축	문체·과기정통부	'24년~
• K-팝 음원 국내·국제표준코드 동시 발급 추진	문체부	'23.下
• 1인 창작자도 웹툰 해외 컨퍼런스·마켓 참여 등 지원대상에 포함	문체부	'23.下
• 제3차 한-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 파견(스마트팜, 식품, 건설·플랜트)	농식품·산업부	'23.9월
•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	농식품부	계속
•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및 메뉴판 다양화	농식품부	'24년
• 수출 全단계(산지~해외 소비지) 농식품 수출 특화 물류체계 구축	농식품부	계속
• 농식품 해외 공동물류센터·콜드체인 지원	농식품부	'24년
• 딸기 등 신선품목에 대해 물류비 지원비율 확대(최대 15%→25%)	농식품부	'23.8~12월
•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확대 및 지자체 연계 강화	농식품부	'23.9월
• 주요 K-Food 품목에 대해 K-콘텐츠 연계 간접광고 등 지원	농식품·해수·문체	계속
• 日·中·美·아세안 현지 유통시장 연계 인기 농식품 집중 판촉	농식품부	~'23.11월
•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대상 수출박람회·국제박람회 참가지원	농식품·해수부	'23.下
• 주요시장 K-Food Fair 개최	농식품·해수부	'23.下
• 우리 주류의 해외 모방품 방지 지원(협의체 구성, 대응전략 마련 등)	특허청	'23.下
• 전력공기업이 해외발전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시 경영평가 가점 부여	기재부	'23.下
•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신규 조성	산업부	'24~
• 수소 전문기업 지정기준 개정 * 수소경제법 시행령 개정	산업부	'24년
• 체코·폴란드 등 대상 맞춤형 세일즈 활동 전개	산업부	계속
•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	산업부	계속
•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·추진	환경부	계속
• 주요 수주일정별(베트남, UAE 등) 장차관 세일즈 외교 추진	환경·산업부	'23.10~11월
• 개도국 등의 환경난제에 대한 현지진단팀 구성·파견(인니·콜롬비아 등)	환경부	'23.10~11월
• 美 실리콘밸리 시장개척단 파견	환경부	'23.12월
• 녹색채권 이자 지원('23년 3조원)	환경부	'23~(한시적)
• 녹색산업 융자 대상에 녹색산업 수출기업 추가	환경부	'23.3Q~
• 해외 녹색산업 프로젝트 대상 이차보전사업에 수은도 신규 참여	환경·기재부	'23.下

2. 수출 지역 다변화

1 주력시장 (미국 · 중국 · 아세안)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	추진시기
• 한중경제장관회의, 한중경제협력교류회 개최	기재부	'23.下
• 인프라(ICT, 에너지, 항만, 공항, 교통), 탄소 중립 등 분야 공동지원 사업 발굴	기재부	'23.下
•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단축 *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」 개정	기재부	'23.下
• 국내 창업·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 조성	중기부	'24년
• 해외현지 합작법인(Joint Venture) 설립 지원('24년 신규 10건)	과기정통부	'24년
• 해외 물류센터 추가 확보 추진(베트남 호치민, 미국 LA)	해수부	'23.下
• 시스템반도체 거점지역 협력센터 신설(미국, 중국)	산업부	'24년
•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신설(미국, 일본)	문체부	'24년

2 新전략시장 (중동 · 중남미 · EU 등)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	추진시기
• 우크라 재건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한-폴 차관급 협의체 운영	국토부	'23.9월~
• 한-우크라 화상협의 지속 개최	국토부	계속
• GICC 우크라이나 재건 특별세션 운영	국토부	'23.9월
• 우크라이나 대상 KSP, EIPP 사업 발굴	기재부	'23.下
• 원팀코리아 사우디 추가 파견	국토부	미정
•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'(가칭)한-사 인프라위원회' 추진	국토부	미정
• 기본여신약정(F/A) 체결 대상국 확대	기재부	'23.下
• GICC에 파라과이 공공사업부 장관 초청	국토부	'23.下
• 사우디 등 신전략시장에 현지 지원센터 신설·운영	국토부	'23.下
• KOTRA 해외무역관 중 거점무역관 확대 * 원전, 방산, 플랜트	산업부	'24년
•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,500억원 추가조성	기재부	'24년
• 글로벌 PIS펀드 1.1조원 추가 조성	국토부	'24년
•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 자본금 확충(5천억→2조원)	국토부	'24년
•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(무보) 확대(20조원)	산업부	'24년

3. 수출 인프라 보강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	추진시기
• 최대 181.4조원 무역·수출금융 공급	기재·산업·중기 금융위	‘23.下
•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수·지원규모 확대	산업부	‘24년
• 해외전시회 설치업체가 받는 선급금 지급률 상향조정 * 코트라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개정	산업부	‘23.下
•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 발굴·지원	중기부	‘23.下
•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	산업부	‘23.下
• K-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 범위 확대(뮤직비디오 등)	문체부	‘23.下
•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하여 마케팅·판촉·전시회 등 참여 지원	산업부	계속
• 수출바우처 규모 확대 및 지원항목 확대	산업·중기부	‘24년
•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시기를 年 1회 → 2회로 분산	산업부	‘24년
•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지정방식을 개편	산업·중기부	‘24년
• 의약품 자동승인 등 신속 시장진입 위한 국가간 규제협력	식약처	‘23.下
• 의약품 상호인정협정 체결국 확대	식약처	‘23.下
• 품목별·국가별 해외인증을 교육하고, 전문가 양성 및 가이드북 보급	산업부	계속
•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고도화	중기부	‘24년
• 보세공장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 적용	관세청	‘23.10월
• 보세창고의 특허요건 및 보관기한 등 규제를 완화·시행	관세청	‘23.10월
• 인천 신항 1-1단계 항만배후단지 준공	해수부	‘23.11월
• 부산항 신항 2-5단계 터미널 준공	해수부	‘23.12월
• 부산항 신항 터미널 內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 확대 협의지원	해수부	‘23.下
• 우수업체(AEO) 인증시 심사서류 축소	관세청	‘23.下
• 사우디와 상호인정약정(AEO MRA) 체결	관세청	‘23.9월
•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	관세청	‘23.9월
• 해외 재수출 목적 방송통신기자재 수입시 신속 통관 지원 *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개정	과기정통부	‘23.下
•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(EODES) 인도와 신규 개통	관세청	‘23.10
• 금년 외국인력 쿼터를 추가 확대(E-9 +1만명, E-7-4 +3만명)	고용부	계속
• 외국인력(E-9) ’24년 쿼터 지속 확대 추진	고용부	‘24년
• 플랜트 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외국인 비전문취업(E-9) 허용 방안 검토	고용·국토·산업	‘23.12월
• 체류기간 제한 없는 숙련기능인력(E-7-4)으로의 전환요건 간소화 등	법무부	‘24년

4. 현장애로 해소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	추진시기
• 원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	기재·산업부	계속
• 유망 수출기업을 방문하는 수출 119 기업방문 컨설팅 신설	기재·산업부	’23.9월
• 주요 수출애로 관련 수출지원 정책 설명회 개최	기재·산업부	’23.9월
• 컨벤션 참가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미팅 통한 판로개척 지원	기재·산업부	’23.下
• 수출 유망 신산업·서비스 분야별 수출기업 간담회 및 1:1 상담 추진	기재·산업부 등	’23.下
• 수출·수주 관련 외교 지원 필요한 국가 대상 주한 대사관 협의 진행	기재·산업부 등	계속
• 수출 판로 확대 위한 중미 5개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	기재·산업부 등	’23.下
• 위험국가 방문시 요구되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	외교부	’23.8~
•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수출 우수기업 우대	기재부·조달청	’23.下